



우석대 올인원팀, 선도기업 분석대회 '장려상'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올인원 팀이 최근 전주혁신창업 허브에서 열린 제6회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직무와 기업분석 역량을 키워 취업률을 높이고, 전라북도 선도기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26개 팀 78명의 참가자는 지난 8월부터 기업분석 및 보고서 작성 교육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했다. 예선심사를 통해 선발된 9개 팀 23명의 청년 인재들이 기업탐방과 산업체 및 사회적 멘토들의 코칭을 받으며 자신들이 예선에서 분석한 내용을 재경비에 최종 경연회를 펼쳤다. 최종 경연에서 우석대학교 정희림·김소연(유통통상학부 3년) 학생으로 구성된 올인원 팀은 대졸년경농조합법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들을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소연 올인원 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라북도에 우수한 기업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업 분석과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취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는 전라북도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최하고 (사)캡티움기술원이 주관했으며,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부를 비롯한 전북 도내 4개 대학이 참여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간호학과 동아리 WSN, 농식품부장관 표창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WSN가 지난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WSN는 2021년도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삼례노인복지센터와 원후정 마을에서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코로나 블루'와 '감염관'의 계절성 질환과 안전한 의약품 복용 및 보관 등 매우 다른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승희(간호학과 3년) WSN 회장은 "농촌지역 주민에게 감염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가 건강능력 증진과 지역사회 건강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보람됐다"라며 "앞으로도 전공 지식을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2022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남원시는 12월 10일까지 2022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며, 선발인원은 총 145명으로 2021년 보다 9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참여 유형은 일반형(전일제/시간제), 참여형(복지일자리), 특화형(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3가지 유형으로 선발하며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 배치한다. 참여희망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출서류(시 홈페이지 시험/채용 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 하면 되고, 선발과정은 제출서류 점검과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면접일정은 일반형은 12월 17일, 참여형과 특화형은 12월 21일~22일에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3일 시 홈페이지 발표와 함께 개별통보 한 예정이다. 김문호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장애인 소득개선 및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063-620-6623),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063-635-154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더 따뜻한 세상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북은행, 취약계층 위한 3000만원 상당 방한 키트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2021 방한(warm) 키트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기부 문화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전북은행은 사회적 취약 계층들이 휴한을 이겨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을 전하고,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경진 부행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밀착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트를 보내 자체 단체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전북은행 지역사람봉사단 40여명은 담요, 넥워머, 수면마지, 수면양말 등 겨울용품으로 구성된 '방한(warm) 키트' 900상자를 직접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김제고 총동문회, 1·2학년 전체 학생 장학금 지급

김제고 총동문회의 후배와 모교에 대한 사랑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제고등학교(교장 이국용)는 총동문회에서 일부를 지원받아 김제고 부활을 위한 'Agin 김제고' 육성사업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해외문화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9년 백두산 탐방과 항일 역사·문화 체험을 진행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문화탐방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된 도서는 총 1,322권으로 분교 학생뿐만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인문학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에게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금 액수는 학생 1인당 40만원이다. 또한 본관 1·2층 사이에 새로 조성한 공간이 열린 공간인 '오르락 내리락'에 비치할 한국학·문학·예술·역사 등 다량의 인문학 도서를 도서출판국학자료원 새미(주)로부터 기증받아 비치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정은성 기자

아프간 특별 기여자 자녀들, 전원 '노란띠' 로 승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사회 적응교육의 일환으로 태권도 교육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자녀 120명 전원이 노란띠로 승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란띠 승급 심사는 11월 29일부터 2일까지 진행되어 승급을 기념해 지도사범과 태권도봉사단원이 승급자들에게 노란띠를 매어주었다. 이들 아프간 특별 기여자 자녀들은 지난 2개월 동안 태권도진흥재단 지도사범 및 태권도봉사단원들과의 태권도 교육에서 발차기와 손기술 등의 기본동작과 태극 품새 수련을 지속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에 오기 전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다는 아프간 특별 기여자 자녀 중 한 명은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흰띠에서 노란띠가 되며 느낀 감동과 기쁨 그리고 한국 정서에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국제태권도사범자격증을 보유하고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승호 태권도봉사단원은 "노란띠를 매어 줄 때 어린 이의 청소년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보았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모악로타리클럽, 삼천3동에 장학금 전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모악로타리클럽(회장 김남한)은 2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동장 김병용)을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전주모악로타리클럽과 삼천3동은 매년,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김남한 회장은 "이번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전주모악로타리클럽은 다양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호성동 지사점, 저소득층에 김장김치 전달

전주시 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원선)는 2일 동주민센터(동장 서세현)를 방문해 김장김치(10KG) 6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김장김치를 구입해 농가 경제도 살리고 저소득층의 겨울철 김장비용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원선 위원장은 "김장김치 담그기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저장 먹거리인 김장김치가 반가운 선물이 될 것 같아 준비하게 됐다"며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김장김치 전달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대 황수빈 대학원생, 도시재생 연구로 '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황수빈 대학원생(도시공학과 석사과정·지도교수 황지욱)이 한국지역개발학회와 산업물류학회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황수빈 대학원생은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과 실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에서 이뤄지는 도시재생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수평적 참여를 강화하는 메커니즘 분석과 현장의 핵심적 관심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문해석을 한 것으로, 연구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황 대학원생은 전북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관련 분야 기업에 근무하며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분야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실무능력과 학술적 역량을 동시에 쌓아 가고 있다. 황수빈 대학원생은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도시계획과 재생 분야에서 실무를 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이론과 실제 현상이 맞물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를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조촌동 지사점, 소외계층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전주시 조촌동(동장 황남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승기)는 2일 정성껏 담긴 김장김치 70박스(10kg)를 관내 홀로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 7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에서 협의체 위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각 가정마다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윤승기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진 시기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고산농협, 사랑담은 김장김치 나눔 행사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지난날 30일부터 2일까지 고산농협 산지유통센터 집하장에서 고산농협과 함께하는 사랑담은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에서 고산농협 임직원과 고산 비봉, 동상부회회장단 90여명은 굵은 날씨에도 지역에서 생산된 양념채소와 배추 1000포기로 김장을 담가 고산 비봉, 동상의 독거어르신과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200여곳에 전달하며 사랑을 전했다. 국영석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김치를 나눠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과 함께할 수 있는 고산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남원시, 시각장애인에 카드 명칭별 점자스티커 배부

남원시가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카드 명칭별 점자스티커 4종 2,000매를 제작해 배부한다. 이번 배부되는 점자스티커는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용카드, 진료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이용하는데 식별이 어려워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각종 카드의 구분을 위한 점자스티커는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주민등록카드·진료카드 등 4종으로 해당 카드 점자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배부는 지난 8월 일괄 신청 받아 배부한 시각장애인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신청자에게 우선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시각장애인과 관계없이 신청자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기존 시각장애인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는 장애인등급과 관계없이 언제나 시각장애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제작을 신청하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권혜정 남원시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소외계층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